

보도 시점 2026. 4. 14.(화) 10:00
(2026. 4. 14.(화) 석간) 배포 2026. 4. 14.(화) 09:00

기후기술의 이전·확산 촉진을 위해 선진국·개도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CTCN, TEC) 회의 국내 개최(4.14.~4.22)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 달성 평가 기준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 회의를 4월 14일(화)부터 4월 22일(수)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기술 메커니즘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과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기술 집행위원회(TEC)와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구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 분야 당사국총회 결정의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 지정 창구(NDE)로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국내 기후 기술의 해외 이전·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 협력 연락사무소(PALO) 운영을 지원하여 국제 재정기구와의 연계, 수요 기반 연구개발 및 실증(RD&D*)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RD&D): 연구개발 및 실증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기술 메커니즘 회의는 작년 9월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 이사회에서 국내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3년 만에 국내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2차 기술 집행위원회(TEC) 회의(4.14.~4.16.) 및 제27차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 이사회(4.20~4.22)에는 미국, 일본, 독일, 나이지리아, 칠레 등을 포함한 총 40여 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 이사회에서는 개도국 수요 기반 기술지원(TA) 프로그램 목록 점검과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등 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구와의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술 집행위원회(TEC) 회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국제적 달성을 위한 기술 수요평가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양 기구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7일(금)에는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N)-기술 집행위원회(TEC) 공동분과(공동 세션)를 개최하여 기후 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추진 전략(AI 이니셔티브)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기후 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 기후 기술 실증연구’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하여,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CTC)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기후 기술 개발의 공백 분야인 중·소규모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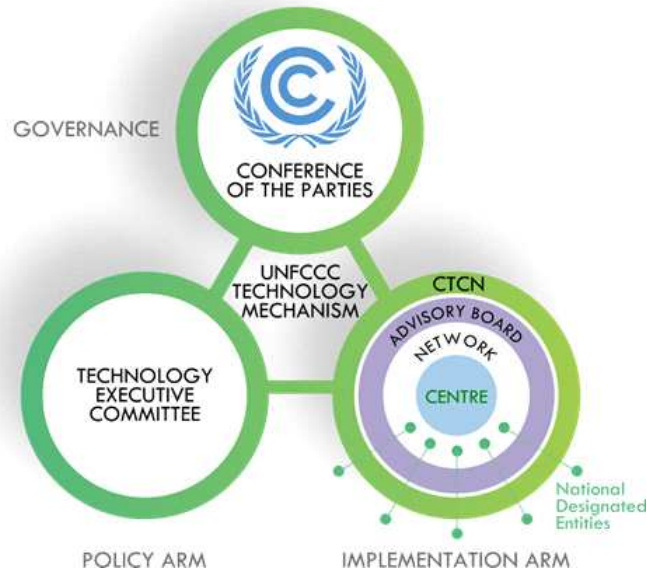
* (주요 내용) 국내에서 개발된 기후 기술을 개도국 현지에서 실증적용하여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중소규모 실증 수준 기술의 해외 확산연계 기반을 마련('26년 신규)

담당 부서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 핵융합에너지 환경 기술과	책임자	과장	지은환 (044-202-4670)
		담당자	사무관	손주영 (044-202-4677)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능책브리핑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체계도 >

- (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기술개발 및 이전 활성화
- (경과)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 결정('10년)
- (구성) 기술집행위원회(TEC),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2개 기구와 각국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지정창구(NDE)로 구성
 - (기술집행위원회) 국가 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각국의 활동사항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적 제언 역할 수행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국가 간 기술협력을 이행하는 국제기구로, 개도국 기술지원·역량강화 등 실질적인 기술협력 활동 지원
 - (국가지정창구) 국가 간 기술협력 사업추진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기술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가별 지정창구

※ 과기정통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국가지정창구(NDE)

TEC 회의(4.14.~4.16.)	CTCN-TEC 공동 세션(4.17.)	CTCN 이사회(4.20.~4.22.)
관련 회의, 행사 업데이트 - 벨렝 기후변화 회의 - 본 기후변화 회의 전망	COP30 회의 결과	CTCN 사무국 보고
국가혁신시스템 - 에너지 저장 - 혁신적 적응 기술 - 인공지능 기술 등	CTCN-TEC 협력 업무 점검	네트워크 멤버십 협력
NDC 도입을 위한 기술수요 평가	벨렝 기술이행프로그램 내 기술 메커니즘 이행 사항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유스 기후 혁신랩 - 글로벌 주제별 역량강화
전환적 솔루션 -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 건물-인프라 - 전환 산업	기후행동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NDE 협력 현황 - 지역별 포럼보고 - 운영 매뉴얼 점검
타 기구와의 협력 - 재정 메커니즘 - CTC 사무국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술메커니즘 영향력 지표 - NDE 설문조사	기술지원(TA) -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혁신 기후 솔루션 프로그램
2023-2027 이행계획 평가	재원 조달 및 파트너십	협력 연구, 개발, 실증
2028-2032 이행계획 수립 착수	-	젠더 주류화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 평가	-	타 기구와의 협력 - 지구환경기금(GEF) - 녹색기후기금(GCF) - 적응기금(AF) - 적응위원회(AC) - 재정상설위원회(SCF)
젠더 주류화	-	재원 조달 방안

□ 연 혁

- (설립)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년)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 설립 결정
 - *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운영
- (운영)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2년)에서 UNEP을 CTC의 운영기관으로 결정(최초 5년)하고 당사국총회와 UNEP 간 MOU 체결('13.2월)

□ 개 요

- (사무국(CTC) 소재) 덴마크 코펜하겐
- (회원기관(Network)) 전 세계 약 893개의 산·학·연 등으로 구성
 - (한국) 한국의 회원기관은 129개로 전 세계 최다회원기관 보유
- (예산규모) 약 10백만\$ 수준('25년 예산(안): 10.2백만\$)
- (자문이사회) CTCN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연 2회(4월, 9월) 개최
 - (구성) 정부위원 18인, 비정부위원 12인으로 구성(총 30명)

□ 주요 활동

- (기술지원) 개도국으로부터 수요를 요청받아 CTCN 회원기관을 통해 수행
- (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가·지역 간, 기관 간의 협업과 개도국 역량 강화
- (지식공유) 기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지식 공유

□ 연 혁

-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년)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술 메커니즘 정책기구인 TEC* 설립 결정
 - *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로 정책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 개 요

- (사무국 소재지) 독일 본 (UN Campus 내 위치)
- (위원회)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후기술 분야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연 2회 정기 회의 개최
 - (구성) 선진국* 10인 및 개도국** 12인, 총 22인으로 구성
 - * 헝가리, 그리스, 일본, 우크라이나, 미국, 노르웨이, 독일, 이탈리아
 - ** 중국, 이란, 파키스탄, 남아공, 잠비아, 라이베리아, 벨리즈, 브라질, 자메이카, 몰디브, 우간다

□ 주요 업무

- 파리협정 기술 프레임워크 내 5대 업무 주제에 대한 주요 업무를 선정하고 업무계획(Rolling Workplan) 작성 및 이행
 - * 혁신, 이행, 가능환경 및 역량배양,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지원
- 각 주제별 업무계획에 따라 개도국 정책 개발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정책 브리프 및 보고서를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연혁**

- 대한민국 정부, UN 간 「기후기술 센터 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 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21.09.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광역시 및 유엔환경계획(UNEP)* 간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행·재정에 대한 약정」 체결('21.10.07.)

* UNFCCC-UNEP 간 MOU 체결에 따른 CTCN의 위탁 관리기관

-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PALO)* 공식 개소('22.7.21.)

*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 **CTCN PALO 개요**

- (소재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 (목적)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선도를 위한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등 대규모 재정기구와 협력 추진
- (주요 활동) 개도국으로의 효과적 기후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재정기구와의 연계, 수요 기반 기술이전(TA) 사업 발굴 등 수행
 - (GCF와 협업) GCF 사업과 연계 및 타 인증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GCF PPF, SAP 본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
 - (NDE 역량강화) NDE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회의, 아태지역 NDE 포럼 및 GCF와의 공동워크숍 개최
 - (RD&D) 기술혁신과 협력적 RD&D를 위한 동료 간 학습, 국내 RD&D 파트너들과의 자매결연 추진 및 전문가/기관들과의 협력 증대
 - (기술지원) 개도국 대상 자발적 공여(pro-bono)를 포함한 기술 지원(TA)